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5월 27일 (제95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최선

내가 한 번 설교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는 노동자가 24시간 일한 것과 맞먹는다는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사실 나는 설교 한 번 하고나면 거의 파김치가 된다. 전신이 땀에 젖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다.

나를 아끼는 많은 성도들은 제발 좀 살살 하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설교할 때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엄한 선포인데 어찌 대강할 수 있겠는가. 또한 내 체질상 대충이란 용납될 수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를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도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할 때 대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1:28~29)라고 말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그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4:15)고 당부했다.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는 말씀이 있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냥 거저 얻는 것은 없다. 영·혼·육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죽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충하려는 생각이나 차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절대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죽기 살기로 할 때 성공하고, 목적인 바를 이룰 것이다. 절대 성공은 녹록한 것이 아니니까.

이시대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설교하셨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입술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전1:21)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

우리는 목사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체질화된 성도들이다.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로 순종하며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일이라면 몸도,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에 받을 상임을 알고 믿는 성

찾아왔었다. 목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백 번 넘게 보며 배운 대로 실천했더니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간증을 우리 성도들은 기도원에서 들었을 것이다.

올해는 베트남에 복음이 전해진지 30주년이 되는 해란다. 1억 인구에 가까운 베트남에 1%조차 안 되는 개신교이지만, 이를 계기로 전 교단이 연합하여 베트남 종교성과 함께 초교파적인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강사를 초청하려는 중에 폴킴 선교사를 통해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본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주강사로 초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다.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 베트남 개신교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대거 입국하는데, 우리는 배운 대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

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정성은 목사님과 우리 일행이 해외집회에 갔을 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 이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6:31)는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사건들이다.

오는 8월의 베트남 집회는 목사님께서 새로운 30년을 선포하시고 갖게 되는 최대 집회가 될 것이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영접은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예배에 이시대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만남을 우리가 최상의 관계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6월 6일 수요일예배에 모두 참



우리는 세계 목회자들을 왕처럼 대접하며 섬겼다(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 중)

도들이다.

이제 또 기회가 왔다. 이번 기회는 한국가를 살리는 일이 되리라 믿는다. 오는 6월 6일, 베트남(Vietnam) 개신교 교단 총회장단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단을 비롯한 매머드급 총회장단 20여 명 일행이 오는 8월초에 있을 베트남 집회에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 그 사전준비 차 입국하는 것이다.

이번 베트남 집회는 폴킴(Paul Kim) 선교사 한 사람의 변화가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유튜브를 통하여 목사님의 집회영상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아서 지난 춘계집회에 한국까지

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

내가 보낸 자, 곧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씀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에서 오시는 주의 종들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해왔다. 다녀간 주의 종

석하여 한마음으로 베트남에서 오시는 목회자분들을 환영해주기 바란다.

지난주일 오후에 서울로 올라오신 목사님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을 접수하겠다!”고 선포하셨다. 베트남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초청하는 집회이기에 목사님의 이런 기대는 반드시 현실화되리라 확신한다. 분명히 베트남 뿐 아니라 주변의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이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갈 것이다. 합심으로 기도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

이 말씀은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자 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즐기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책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여러분, 이 두 말씀은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곧 현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이 없이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present’란 단어는 ‘오늘, 현재’라는 뜻과 ‘선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미래가 약속어음이라면 현재, 곧 오늘만이 현금이기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산 자 중에 참예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이니라”(전9:4)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일의 밑거름이요, 내일의 토대입니다. 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청년시절에 오늘 오늘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늘을 열심히 묵회했기에 지금의 예수중심교단이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오늘 공부해야 내일 성과를 내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일해야 내일 성취할 수 있고요, 오늘 운동해야 내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내세에 구원과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선물이다

게으름이 됩니까? 오늘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런 자에게 아름다운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일 일하지,’ ‘내일부터 꼭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꼭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사람치고 성공하는 것 못 봤고, 살 빼는 것 못 봤습니다. 내일은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육의 성공은 바로 오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24:36).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너희

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마25:13)는 겁니다. ‘내일부터 깨어 있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부터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 꼴 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것같이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



여
김을
받으시
오며 나
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눅11:2~4).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날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모여 ‘날마다’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날마다’가 모이면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옵시며,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당치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뱀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이렇게 오늘을 위해 기도하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날마다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물 한 방울처럼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위를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한꺼번에 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바위에 한꺼번에 물을 한 항아리 붓는다고 뚫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오늘
이라도 아내
를 사랑하
리라, 오

늘
이
라
도 남편
을 존경하
리라, 오늘만
이라도 공부하리라, 오

늘만이라도 운동하리라. 오늘만이라도 성경을 읽으리라. 오늘만이라도 기도하리라,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오늘만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리라, 오늘만이라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오늘만이라도 겸손하리라... 이렇게 오늘을 살면 그렇게 ‘날마다’ 살게 되고, 그렇게 ‘평생’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오늘만이라도’가 좋은 습관이 되어 당신의 내일을 창대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6~18)고 했습니다. ‘항상’이 됩니까? 지금,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봉사하는 삶을 사는 배우 차인표 씨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Right now(지금 하자)! 그는 자기 동생을 6개월 동안

병간호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죽고 나자 그 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면서, ‘사랑도 일도 꿈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만이 내 것입니다. Right now! 지금 합시다. 부모님께 오늘 전화합시다. 형제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합시다. 지금 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이 비록 힘들지만 장차 거둔 열매를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한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메달의 주역들이 거둔 열매는 과거, 오늘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씨를 뿌리는 일이 힘들니까? 오늘 내 일에 최선을 다하지니 힘들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내일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말입니다.

사냥꾼이 될 것이냐 사냥감이 될 것이냐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거둔 것이 없다면 그건 과거, 오늘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저축하면 당신에게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 장 한 장 쌓은 겁니다. 날마다 쌓다보면 만리장성이 완성됩니다.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인들이나 믿음의 선전들의 업적에 입이 짝 벌어지니까? 그들이 한 것은 오늘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당신도 능히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하기만 하면! 오늘 좋은 것을 뿌리기만 하면!

오늘만이라도 책을 보리라, 오늘만이라도 영어공부를 하리라, 오늘만이라도 일기를 써보리라, 오늘만이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리라. 이렇게 결정하고 실천하는 당신의 내일은 제가 예언키로 분명히 명품인생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우리의 봉사를 쓰시는 하나님

평강, 주님이 주신 축복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잠14:23).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일이 수고와 봉사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말로만 하는 자는 궁핍하게 된다는 말이다. 말로는 금방 재벌이 되고, CEO가 되고, 큰 성공자가 될 것 같은데 전혀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은 허풍에 불과하고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곧 허풍쟁이로 전락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 3차 전도여행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역사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 했다. 하나님이 홀로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봉사, 곧 자기의 노력과 수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다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라고 안하고 자기의 봉사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한 말을 눈여겨 봐야한다.

하나님 일이나 세상일이나 가만히 있는데 거저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꿈과 계획을 갖고 발걸음을 옮기어 수고의 땀을 흘리고 봉사할 때 비로소 그 일이 시작되고 결실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말이 씨가 되는 건 맞다. 그러나 그 씨를 뿌리기만 하고 내버려둔다면 열매 맺기 힘들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세상이나 교회는 말만 잘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는 생각을 갖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서서 그 말의 씨를 밭에 심어 주신다.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 때 사람들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씨가 싹을 틔우면 풀을 뽑고, 거름 주고, 소독하고, 벼틔목을 세워 주는 수고와 관심을 우리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젊은 날에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고 생각했다. 손주를 낳아 키우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하! 자녀를 주시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지만,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데는 엄마, 아빠, 주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봉사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즘은 애기 엄마들을 보면 ‘낳기는 네가 낳았고 키우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말 대신 ‘애 키우느라고 생이 많구나. 참 애썼다.’라고 말한다.

나의 봉사와 수고가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의 봉사와 수고가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 하나님은 직접 안내하시지 않고, 직접 설교하시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봉사자로 쓰셔서 그 봉사와 수고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우리 교단은 엄청난 목사님의 수고와 성도들의 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결과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이다. 나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이시대 목사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을까. 주께서는 언제 잡힐지 몰라 불안한 제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지 않고 평강을 축복하셨다. 우리는 물질과 건강만을 기도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평강을 무엇보다 주고 싶어 하신다. 평강이야말로 주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 새벽에 ‘여호와 닛시!’의 음성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라 알아보니 여호와와 깃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 승리를 기념하는 모세의 제단 이름이었다. 너무 놀라운 체험이어서 만사를 제쳐두고 서울 인근의 모세골이라는 기도원으로 향했다. 자금경색 등 회사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기도를 기도 필경 거의 잠 못 자고 뒤척일 터였다. 아마도 엄청난 체험이 있을 거라 예상하였는데 4박 5일 동안 아무런 체험이 없었다. 다만 4박 5일을 언제 잠

들고 언제 깬지 모르게 잠들고 깬다. 체험 없이 안온함을 느끼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올라오는 열차 안에서 느낀 것이 ‘아, 평강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이었다. 안달하지 않는 삶, 그 평강을 느끼니 그 험한 고통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 후에 기도 중 르비딤이라는 히브리어를 들었는데, 르비딤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고, 아말렉을 물리친 곳도 르비딤이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실 것을 여호와 닛시와 르비딤 두 히브리어 말씀으로 확증시켜주셨다. 내가 평강할 수 있는 이유이다. 평강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내 지금의 삶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가난하고 외롭지만 지극한 평강 속에서 살 수 있음이 신기하고 감사하다.

이광주 전도사

leekilkj@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배수(背水)의 진을 쳐라

가볍게 끝내기!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가 2013년 경 미국 아이비리그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맡게 되었다. 그 당시에 그녀는 25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만두고 OWN(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케이블 방송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상태였다. 애석하게도 모든 언론들은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고, 그녀 자신도 그 때를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고 회고한다. 스트레스와 좌절 가운데 전전긍긍하던 그녀에게 하버드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4~5개월 뒤에 있을 졸업식 축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온 것이다.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있는 이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생들의 졸업식 축사를?’

그녀는 답을 미룬 채 전화를 끊고 오랜 시간 샤워를 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오래된 찬송가 가사를 흥얼거렸다. “문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축사 제의를 수락한 그녀는 그 몇 달 사이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마침내 적

자로 허덕이던 자신의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켰고, 영향력 있는 방송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자극(?)시켜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그녀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졸업식 축사를 앞둔 그 몇 달 안에 반드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성공자로 그 자리에 서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그녀의 삶에 또 하나의 기적을 더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기도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11:24).

정작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의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의심하지도 말고, 물려서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동생이 언제부터인가 한 책을 지속적으로 추천하였다. 책의 제목은 ‘피니시’(FINISH:종료), “백만 개도 넘게 시작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단 한 개도 제대로 끝내지 못했죠?” 시작만 하고 끝맺음을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었다. 순간 아직 책을 읽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외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사이에서 <피니시>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계획의 92%는 실패로 돌아간다. 매년 1월이 되면 희망에 들뜬 사람들은 다양하고 어찌보면 복잡한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자랑스럽게 시작하지만 끝인지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8명뿐이다. 순간 나의 연초를 밝힌 새해계획들을 점검해보았다. 성경일독하기,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운동하기 등은 게으름과 자기합리화라는 ‘두려움’에 뒤덮여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시작도 했고 중간지점까지 왔는데, 왜 목적지까지의 완주가 잠시

정지된 것일까? <피니시>작가는 이런 만성 ‘시작병 환자들’에게 극약 처방으로 자신의 일화를 하나 공개한다. 장애인 철인3종 경기에 시각장애인 참가자와 도우미가 참가한다. 이들은 수영과 자전거 종목을 끝내고 마지막 달리기 코스를 할 차례가 되었다. 그때 시각장애인 참가자는 도우미에게 부탁한다. “오르막 구간에서 나에게 그걸 말해주지 마세요. 나는 오르막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알게 되면 겁을 먹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르막을 오르막인지 모르고 오르면 나는 힘들지 않을 겁니다.” 아! 결국 내가 연초에 시작한 계획을 끝맺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이유는 ‘생각의 차이’였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늘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고 하시며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 난 실패야...’가 아닌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도전해보자’라고 하신다. 아직 우리에게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다시 한 번 우리의 목표<피니시>지점을 바라보며 힘을 빼고 가볍게, 오르막 구간이라는 ‘현실’은 무시하고 달려가자.

송현혜 자매

charisma0691@hanmail.net

순종의 이유

대학시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일입니다. 119에 실려 간 저는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뇌 CT를 찍기 위해 검사실로 실려 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사고를 당한 상태라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순간 저는 ‘내가 잘못 들었나? 설마 지금?’ 하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고, ‘하나님! 저 방금 전에 사고로 하나님 직접 찾아볼 뻔한 거 아니죠? 지금요?’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 또렷한 음성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어야 한다고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깨달은 저는 오른쪽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으로 시작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라고요. 혼미한 상태에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말하자니 제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내가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나 보다 생각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큰 사고에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찾아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제 부모님은 장로, 권사인데 저는 바쁘다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다. 며칠 전, 어쩌려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지 하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환자가 실려와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하니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꼭 교회에 잘 나가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모든 순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의 범위와 넓이, 이유와 목적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순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도 때론 다 알아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니 이후에 알게 되었지요. 요셉이 그 길었던 고난의 시간

동안 총리가 되는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꾸 궁지에 몰리는 반복된 상황에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순종만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높여 가셨고 그를 통해 가족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민족 전체의 생명을 짊어진 장군에게 전쟁장비나 군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락해야 할 성을 일곱 바퀴 돌라는 명령이 이해가 됐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기적으로 일하시며 승리로 보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들리는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명령들에 순종해봅시다.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망설임 없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황하셔서 멈추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저 없는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감동하실 것을, 그래서 승리와 축복으로 보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Good New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가정한다면 은하계의 지름은 그 종이를 480킬로미터 쌓아둔 것 같은 거리라고 합니다. 우주에 이러한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은데 우주의 수많은 먼지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상초월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로는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협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세상 모든 사

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선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만물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까? 다른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원기를 북돋워 주는 추어탕

농촌에서는 추분이 지나고 찬바람이 들기 시작하면 논에서 물을 빼주고 논 둘레에 도랑을 파는데 이를 ‘도구친다’고 한다. 도구치면 진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려고 논바닥으로 파고들어간 살찐 미꾸라지를 잔뜩 잡을 수 있다. 이것으로 국을 끓여서 동네잔치를 여는데, 이를 ‘값은 턱’ 또는 ‘상치(尙齒)마당’이라고 하며, 마을 어른들께 감사의 표시로 미꾸라지 국을 대접한다. 미꾸라지를 추어(鰍魚)라고 하며, 성미가 달고 무독하다. 주로 비장, 간장, 신장의 경락에 영향을 주고, 소화기가 약해서 생기는 설사, 붓거나 소변이 덜 시원하거나 당뇨 및 체력이 떨어진 것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의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기운이 나게 하기에 소음인들에게 좋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예전부터 여름철 더위와 일에 지친 농촌 사람들에게 요긴한 동물성 단백질

급원이었으며 무기질과 비타민도 풍부하다. 단백질 중 필수아미노산이 반 정도 되고 성장기 어린이나 노인에게 아주 중요한 라이신이 풍부하다. 또 타우린이 들어있어 간장을 보호하고 혈압을 내리며 시력을 보호하는 작용도 한다고 한다. 미꾸라지에 들어 있는 지방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다. 특히 DHA와 EPA 등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에 효과가 큰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또 뼈째 먹는 경우가 많아서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인 칼슘의 섭취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A의 함량이 많은데 항암작용도 있고,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본초강목』에서도 “양기(陽氣)에 좋고, 백발을 흑발로 변화하게 하며, 초롱의 등심(燈心)에 익힌 것(煮, 사이 제일 맛있고, 양사(陽事)에 좋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정

력제로 애용했다고 한다. 먹을 때는 통고추나 풋고추를 다져넣고 산초가루를 뿌려서 먹는다. 여기서 추가하는 산초가루가 중요한데, 비린 맛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며, 어류의 독성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추어탕과 어울리는 중요한 향신료이다. 몸에 열이 많거나 임신부는 신중하게 복용하는 게 좋으며, 배가 차고 평소 다리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하는 등의 하체가 차거나 시린 분들에게 도움이 되며, 일본에서는 대장암 회복기에 사용하는 중요한 약재 중에 하나이다. 현대인들에게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체력을 증강시켜주는 추어탕, 이 보약과도 같은 식사가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고 했다. 잘 먹는 음식이 약보다 낫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당연한 건 없다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는 급격히 눈에 띄게 해를 주는 요인이 있는 반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해를 주는 요인도 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오해와 갈등이 급격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면, 익숙함이란 함정은 서서히 관계의 생명력을 뺏아간다. 익숙함은 서로 간의 관계에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감사한 것마저도 당연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사랑이 막 시작된 연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 해주는 모든 행위에 고마움을 느낀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특별히 준비한 선물조차도 ‘우리 사이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사랑은 서서히 식어갈 수밖에 없다. 사랑의 자극제는 감동이고, 그 감동은 감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내가 숨쉬는 공기,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감사하게 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 친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어느덧 오래된 일상이 되어 익숙해지고, 때 되면 가는 교회가 전부가 되는 순간 감사에 대한 망각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불평불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다. 당연한 건 없다. 그러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관계의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자신에게 늘 이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부모님이 늘 값없이 내게 자신의 것을 주시는 것, 아내와 남편,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내 곁을 지켜주는 것,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직장이 있는 것,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 모두 다 당연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박천영 집사
post.naver.com/imsosfriendly

